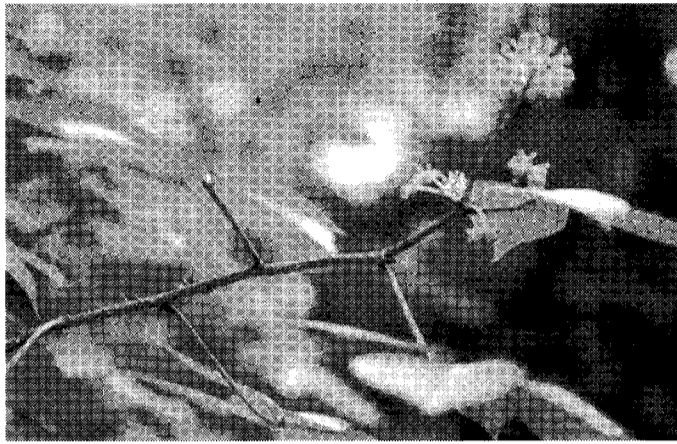


가시오갈피 우량종묘 생산 쉬워졌다

가평농기센터, 조직배양 성공 내년 농가에 3만본 보급계획



항암효과를 비롯해 피로회복, 강장제 등의 약효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가시오갈피 우량종묘가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씨로 키우기도 어렵고 삼목번식 역시 성공률이 50%도 안되는 가시오갈피의 조직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올해 300평의 시험포를 만들어 지역적응 및 실증재배를 한 다음 내년에 선도농가에 3만본을 보급하고 2002년에는 가시오갈피 생산단지를 조성해 연간 12만본의 우량종묘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자생하는 가시오갈피 종자는 등숙(여물) 불량으로 종자확보가 힘들어 묘목값이 3년생 기준 한 그루에 3,500~7,000원으로 높아 지금까지 일부 농가만 재배하고 있다.

가시오갈피는 우리나라 일부 산악지대에만 소수 자생하는 희귀 보호식물로 줄기 전체에 가늘고 긴 회갈색의 가시가 붙어 있고 생김새가 산삼을 닮아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인삼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가시오갈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과 건강음료를 개발, 유통하고 있으나 가시오갈피는 다른 지리산오갈피등의 껍질을 이용하거나 러시아, 중국 등지로부터 가시오갈피의 진액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장한호 박사는 "조직배양 우량종묘와 함께 재배기술도 보급할 계획"이라며 "가시오갈피는 수출전망도 밝은 만큼 조직배양 종묘가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되도록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약 관수재배 상품성 좋아져

작약을 재배할 때 관수를 하면 수량을 늘리고 품질도 높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은 작약을 재배할 때 싹이 땅위로 나와 왕성하게 자라는 생육 초기에 방울물주기시설 등으로 관수하면 수량과 품질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의성약초시험장에 따르면 관수방법은 방울물주기 시설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7일 간격으로 강수량 기준 10mm에 해당하는 물을 공급하면 된다.

의성약초시험장은 참혹토양에 심은 2~3년생 작약에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관수한 결과 10a(300평)당 2,349kg보다 수량을 13% 늘렸다. 또 뿌리의 평균 길이가 34cm, 지름은 28.2cm로 나타나 상품율도 높아졌다는 것.

의성약초시험장 김세종 농업연구사는 "생육 후기보다 초기에 관수를 해주는 것이 땅위의 자람세를 촉진시켜 결국 뿌리의 비대효과도 높일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0576-832-9669)

새품종 '풍성황기' 내년 보급 계획

재래종보다 수량이 높은 <풍성황기> 신품종이 개발돼 2001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1994년부터 6년간에 걸쳐 재래종보다 아스트라갈로사이드 성분 함량이 높고 쓰러짐에 강한 <풍성황기>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풍성황기>는 아스트라갈로사이드 성분 함량이 100g당 116mg으로 재래종보다 10mg이나 더 많고 10a(300평)당 수량도 재래종보다 19%나 향상된 243kg으로 나타났다. 재배지는 황기의 품질과 수량을 위해 300m 이상인 중·산간 고랭지가 알맞다.(문의:0331-290-6719)

황기 적정 석회시용량 밝혀

10a당 200~300kg
3년마다 뿌리면 증수

황기재배때 투입하는 석회의 적정 사용량이 밝혀졌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발토양 평균 산도 ph 5.8-6.0을 기준으로 석회를 10a(300평)당 200-300kg 정도씩 3년주기로 뿌려주면 땅속 생장조건을 개선해 황기의 품질을 높이고 수량도 26%까지 늘리수 있다고 밝혔다.

석회투입 방법은 황기를 파종하기 3주일 전에 석회살포기 등으로 포장에 전면 살포

한 뒤 10-15센티 깊이로 갈아 땅속까지 석회가 골고루 섞이게 한다.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은 10a당 300kg의 석회를 살포해 포장을 조성한 뒤 질소, 인산, 칼리, 퇴비를 6kg, 8kg, 9kg, 2,000kg씩 밀거름으로 투입하고 4월 중순에 <정선재래종> 황기를 파종, 1동안 재배한 결과 평균 뿌리길이 40.7cm, 지름 13.8mm의 황기를 10a당 225kg 수확했다. 이는 석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뿌리길이 38.6cm, 지름 13mm보다 품질이 좋아졌고 수량도 186 kg보다 26% 늘어난 것이다.

'구기자' 책자 발간 충남농업기술원

충남도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은 국내의 구기자 관련 자료를 종합, <구기자>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구기자에 대한 국내외의 기록, 유래, 재배역사, 구기자의 재배법, 병해충 방제, 특수이용법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가 정리돼 있다. 특히 1992~99년까지 자체적인 시험연구 결과 확립된 재배방법 및 시비법, 생력재배법과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병해충까지 망라돼 있다. <문의 0454-

한라산 고지대, 장뇌재배 '적지' 시험과종결과 발아율 높고 생육양호

한라산 고지대가 장뇌(재배산삼) 재배적지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92년과 95년에 한라산 북부지역 국유림지대 해발 5백~7백m 지점에 산지인삼을 파종, 발아율이 75%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생육상황도 7년산이 근중 4.8g, 근장 17.1cm, 근직경 1.4cm, 5년산이 근중 2.9g, 근장 15.8cm, 근직경 1.15cm로 양호하다고 지난11일 발표. 또한 인삼의 주성분인 사

포닌 함량도 일반 발재배인삼보다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인삼연구소로부터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뇌연구진은 장뇌(산삼)종자 21를 확보해 지난 3월 한라산 7백~8백m 일대에 시험과종하고 발아 및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라산 5백고지 이상 활엽수지대에 산삼과 산지인삼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청양구기자 여름산이 품질 좋다

색깔어두워도 진액함량 유효성분 많아

성을 분석한 결과 색깔이 어둡고 갈색도가 높은 8월산 구기자가 붉은 선홍색이 선명한 10월 이후 끝물 구기자 보다 진액함량과 유효성분인 베타인, 총 당함량, 타닌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액함량은 8월산 38.25%, 9월산 32.15%, 10월산 27.18%로 조사됐고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는 8월산 23.01, 9월산 26.18, 10월산 31.5로 분석됐다. 이는 8월산이 색깔은 어둡지만 유효

성분 함량이 많은 고품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에대해 청양구기자시험장 관계자는 "청양산 여름구기자는 건조과정에서 열풍건조를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 진액이 구기자 표면으로 흘러나와 끈적하고 딱한 느낌"이라며 "구기자를 선택할 때 색깔이나 밝기등 겉모습만으로 품질을 판단하기보다 유효성분과 품질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